

## 美 관세 관련 기재부 시장점검회의 개최

- 미국은 한국 상호관세율 25%로 통보, 간 밤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소폭 확대 -
-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하에 금융·실물경제 동향 지속 모니터링 -

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‘25.7.8일(화) 08:30 내부 시장 점검회의\*를 개최하여 美 관세 관련 동향과 시장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.

\* 국제금융센터 및 기획재정부 내 관련실국 참석

美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상호관세율을 통보하였다. 한국산 제품의 경우 25%의 상호관세율을 유지하면서, 발효시기를 7.9일에서 8.1일로 연장하였다. 美 정부의 관세 서한 발송 이후 미국 주가는 소폭 하락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.

\* 주요지표 변화(7.8 기준, 한국시간): (S&P500)△0.79% (달러인덱스)0.4% (美 국채금리<sup>10년물</sup>)3bp

정부는 향후 美 관세 부과 진행 양상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,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.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美 관세 관련 동향과 금융·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,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되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(Contingency plan)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.

기획재정부	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	책임자	과 장 조성중 (044-215-2730)
		담당자	사무관 최봉석 (bongseokchoi@korea.kr)